

변함없이 묵묵한 산의 모습에 감동하다



누군가는 산에 살고 산을 오르며 산을 노래하고 산을 바라본다. 유산(酉山) 민경갑 선생은 산을 그린다. 50여 년 작가인생에서 산과 마주하지 않은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산은 계절도 화려함도 혹은 험난함도 아기자기함도 없다. 그저 최소한의 산 모양을 한 '산' 일 뿐이다.

“내가 산을 좋아하고 못 잊어하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묵묵히 우뚝 솟아 있는 그 모습에 감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나의 작품에는 산을 소재로 한 작업들이 많다. 내가 그리는 산에는 숲이나 시냇물 또는 새가 없어도 좋다. 오직 내게는 그 덩어리 하나만 있어 준다면 좋다. 내가 그리는 산은 우리를 즐겁게 하여 주는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산이 아니라 산의 모양 그 자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 작품에 나타난 산의 형상은 산이라는 모양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호 그 자체일 뿐이다. (작가노트 중에서)”

기호로서의 산. 산이 웅장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끼고 포용하는 그 섭리가 좋고 배우고 싶고 동화되고 싶은 마음에 유독 산에 집착한다는 민경갑 선생. 올해 74세인 그가 스스로 ‘한창 때’라고 말할 만큼 건강하며 역동적인 것은 그 산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자기만의 언어로 풀어내는 일에 늘 집중하기 때문인 듯하다.

195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하여 그림을 시작한 그는, 먹을 찍어 붓으로 그려내는 동양화의 신비로움에 반해 10년에 걸쳐 운필(運筆)을 터득했지만, ‘마르고 나면 가벼워 보이는’ 그 특성에 답답함을 느꼈다. ‘이렇게 하면 서양화와 같은 질감을 낼 수 있을까’. 작은 의문으로부터 시작된 탐구는 재료와 기법에 대한 다양한 실험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던 전통 수묵화를 벗어나 ‘한국적 그림’을 그리려는 노력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한지에 천연 식물안료를 칠한 다음 면이 고른 딱딱한 솔로 두드려 종이의 조직 속에 안료가 깊숙이 스며들도록 하는 지금의 독특한 기법이 탄생했다. 그의 작품이 서양화와 같은 질감을 느끼게 하면서 종이의 물감이 일체화된 듯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법 때문이다.

1960년대, 비구상이라는 단어가 한국화에서는 낯설기만 할 당시 그는 비구상 수묵 작품으로 국전에서 추천작가가 되어 화단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졌다. 그는 당시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해 “질감은 성공했으나 표피에 불과하고 정신은 따라가지 못했다”고 회고한다. 이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을 먹고 구상으로 선회해 ‘정신’을 온전히 담은 새로운 한국화를 모색해왔으며, 이는 비구상이나 반추상으로 불리는 지금의 작업에까지 울골이 이어져오고 있다.

‘산’이라는 기호를 통해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연과의 조화’에서 시작해 ‘자연과의 공존’, ‘자연 속으로’, 그리고 이제 ‘무위(無爲)’에 이르렀다. 일반적인 동양 화와는 달리 한 점의 여백도 허용하지 않은 화면은 그러나 자연의 깊고 넓은 메시지와 만나 보는 이에게 무한한 여백을 선사한다. 보이는 것 이면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의 작품 속에 서려 있기 때문이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문화의 계승자임을 자부하면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서를 지켜온 민경갑 선생. “정체성을 지니고 그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 작가로 역사 속에서 평가받고 싶다”는 그는 그러하기에 지금 이 순간도 실험을 멈추지 않는다.▲